

일본 신화: 우가야후키아에즈

형을 이긴 야마사치비코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부인인 도요타마가 곧 아이가 태어날 것이니 출산을 위한 오두막을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도요타마의 말에 따르면 하늘 신의 자손들은 바다에서 태어나선 안 되기 때문에 출산을 위한 오두막은 육지에 지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야마사치비코는 도요타마를 위해 오두막을 짓기 시작하지만, 가마우지의 깃털로 만든 지붕이 채 완성되기도 전에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두막에 들어간 도요타마는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절대 봐서는 안 된다고 야마사치비코에게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야마사치비코는 끝내 참지 못하고 해신의 딸인 도요타마가 거대한 상어로 변한 모습을 보고 말았습니다. 정체를 들킨 도요타마는 갓 태어난 아기를 남겨두고 슬퍼하며 바다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남겨진 아기에게는 ‘가마우지의 깃털로 만든 지붕이 완성되기도 전에 태어난 자’라는 뜻의 우가야후키아에즈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우가야후키아에즈는 도요타마의 동생인 다마요리의 손에서 자라지만, 훗날 우가야후키아에즈가 성인이 되자 두 사람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니치난 시의 우도 신궁에서는 우가야후키아에즈를 신체로 모시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전승에 따르면 우도 신사가 세워진 해안의 동굴이 우가야후키아에즈가 태어난 장소라고 합니다.